

박병종 VS 진종근 '운명의 3차전'

■ 고흥군수 입지자

고흥군 민선 5기 군수선거에서는 24일 현재 재선을 노리는 박병종 군수에, 김학영 전 고흥경찰서장, 신금식 고흥타임즈 발행인, 이일형 전남도의원, 장인식 전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철우 변호사, 진종근 전 군수 등 6명이 도전장을 던졌다. 이중 진 전 군수와 신 발행인을 제외한 다른 후보는 모두 일단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뜻을 보이고 있다.

박병종 군수는 고흥군 축협조합장 출신으로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 석패했으나 4년 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공천을 받아 승리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박 군수는 "지난 4년 동안 투자유치를 어렵게 했던 수자원보호구역의 73%를 해제하는 규제 완화로 고흥조선타운과 우주해양리조트 등을 유치하는 등 산업단지 조성·리조트 개발·우주항공산업 육성·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역점을 두고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 2조원의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 고흥군수 입지자



(가나다 순)

김학영(58)	박병종(56)	신금식(52)	이일형(58)	장인식(60)	장철우(52)	진종근(61)
민주당	민주당	무소속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무소속
전 고흥경찰서장	고흥군수	고흥타임즈 발행인	전남도의원	전국행정안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변호사	전 고흥군수

"나로호 발사와 항공기 성능 종합시험센터 유치, 경항공기 공장 건립 등 '우주항공수도' 건설을 구체화했다"며 "주거환경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 760세대 규모의 택지개발을 착수하는 등 자족도시 기능을 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렸다"고 덧붙였다. 박 군수는 이어 "지난 4년이 준비 기간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발전을 40년 앞당기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경제·교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화하는 고흥을 건설, 군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고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 11월 경찰직을 그만두고 고흥으로 내려와 선거준비를 해왔던 김학영 전 서장은 보통고시, 임법고시, 행정고시를 차례로 합격하며 재무부, 국회, 전남도청, 청와대, 경찰에서 공직생활을 했다. 그는 "30여년 동안 다양한 공직 경험과 요소요소에 있는 인맥을 고흥 발전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서장은 "1차산업인 농수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산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염된 농토와 바다를 살리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고흥

군만이 가지고 있는 관광요소를 활용, 소득 올리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좋은 학교 만들기를 통해 찾아오는 고흥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종근 전 군수는 박병종 군수와 지난 2002년 선거에서 경쟁해 승리했으나 4년 후에는 재선 도전에 실패하고 이번에 설욕전을 버트리고 있다. 내무부와 지방 등에서 27년간 공직생활을 했던 진 전 군수는 "지방자치는 정치가 아닌 행정이다"며 "군수는 국민에게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되고 공약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영 '풍부한 인맥·공직 경험' 다크호스로

장인식·장철우·이일형·신금식씨도 도전장

그는 또 "지금 필요한 것은 농업경쟁력 강화와 복지 확대, 안재 육성 등이다"며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산물 산업과 우주항공을 테마로 한 관광산업 육성, 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고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입법고시를 통해 지난 1981년부터 28년간 국회에서 근무했던 장인식 전 국회 전문위원은 "국회에서 일하며 겪은 경험과 다진 인맥을 통해 고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발전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농어촌도로법 제정으로 농촌 도로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매년 고흥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장 전 전문위원은 "단기적으로 친환경농수산물을 통한 농어업 발전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주기지와 한려수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SS프로젝트를 입안,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철우 변호사는 17대 총선 이후 두 번째로 고흥에서 선거를 준비 중이다. 소록도 한센인권변호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장 변호사는 "사업을 벌여야 고흥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 이전에 포용과 화합의 인적

네트워크, 군민 내부의 전근대적 권력 관계 청산, 군민이 주인 되는 의식 개혁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대적 지원을 통해 전통산업인 농업을 우선 살리고 대단위 은퇴자 마을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또 "고흥은 좋은 조건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패기를 갖춘 역동적인 젊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선의 전남도의원인 이일형 의원은 지난 달 고흥군민회관에서 출반기념회를 갖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그는 "4선 도의원으로 풍부한 의정경험을 통해 얻은 훌륭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풀어 놓겠다"면서 "남부권은 수산업 전진기지, 중부권은 우주클러스터, 북부권은 농수산물 산업으로 지역별 특화산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5대에서 17대까지 3번의 총선에 출마한 신금식 고흥타임즈 발행인은 "전국최고의 청정 농수산물 지역, 휴양, 관광타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 쟁점 & 변수

고흥군수 선거에서는 박상천 의원의 의중과 무소속 연대 가능성이 가장 큰 변수가 된다.

고흥·보성을 지역구로 둔 박 의원은 민주당 경선 구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

특히 고흥에서 박 의원 영향력은 아직도 막강하다. 물론 박 의원은 24일 현재까지 공정 경선을 외치고 있지만 막판에 의중이 측근들을 통해 당원에게 전달될 경우 경선 결과에 결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후보마다 박 의원의 친밀감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 밀리는 일부 후보는 무소속 출마까지 검토하고 있다. 박병종 군수는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때 박 의원을 도우면서 인연을 맺어 지난 2006년에는 박 의원의 도움을 받아 당시 현직군수인 진종근 후보를 꺾었다.

장인식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박 의원이 평민당 내무위 간사일 때 국회 전문위원으로서 만난 이후 20여년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장철우 변호사는 개업 때 박 의원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고 직전 총선에서 박 의원 때문에 출마 뜻을 접은 것으로 전해진다.

① 박상천 국회의원의 선택은

② '무소속 연대' 이뤄질까

③ 소지역주의 투표 이번에도?

이날 현재 진종근 전 군수는 이미 무소속을 선언한 상태며 김학영 전 고흥경찰서장도 여차하면 무소속으로 뛰쳐나올 기세다. 김 전 서장은 특히 "진 전 군수 등과 연대를 통해 현 군수에 도전할 생각이 있다"고 말해 향후 경선과 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연대를 시도할 뜻을 확실하게 했다. 진 전 군수도 "당에 상관없이 좋은 후보라면 도와줄 의향이 있다"며 연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군민들이 군수 책임자가 누군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라고 조금만 연대 논의를 접게했다.

소지역주의가 선거기간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02년 진 전 군수가 승리할 때도 도당읍을 중심으로 한 남부에서

두 후보가 나와 표를 분산하는 바람에 당 선될 수 없었다는 게 당시 선거관계자들의 분석이었다.

이번에도 고흥 남부지역에서 박병종 현 군수와 김학영 전 고흥경찰서장이 나왔다. 반면, 진 전 군수는 고흥읍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에서 강한 지지세를 형성하고 있어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장인식 전 국회 수석 전문위원과 장철우 변호사도 같은 지역 출신이어서 표가 조금은 분산될 것으로 보이며 박 군수의 지지세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형성되고 있어 승패를 결정하는 변수가 되기에는 약하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 도의원 입지자

고흥군의 도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2명이다. 이를 위해 모두 9명의 후보가 민주당 공천을 바라고 경쟁하고 있다.

제1선거구(고흥읍, 점암·영남·과역·남양·동강·대서·두원면)에서는 이일형 현 도의원의 군수선거 출마로 무주공산이 됐다. 이 자리를 놓고 5대 고흥군의회 전반기의장을 지낸 송경석 의원, 박상천 의원 보좌관인 송형근씨, 장귀석 전 (3대 후반기)군의회의장, 윤민수 전남도당 교통특위위원장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재선의 송경석 군의원은 고흥군축협회장을 역임하는 등 체육계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는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어 도의원에 도전했다"고 말했다. 송형근 보좌관은 16년간을 박상천 의원을 보좌하며 정당 활동 경력을 쌓았다. 그는 "시대적 흐름이 참신성에 있다"며 공천에 자신감을 보였다.

동강우체국장이기도 한 윤민수 교통특위위원장은 열린우리당 출신으로 지난 2006년 도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실패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지방정치에 접목하기 위해 선거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에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선의 군의원으로서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40%나 득표율에

2개 선거구 후보 9명 모두 민주당

'공천 = 당선' 불꽃같은 경선전 돌입

■ 도의원 입지자

선거구	이름	경력
1	송경석(만·57)	군의원
	송형근(만·48)	박상천의원 보좌관
	윤민수(만·46)	민주당 도당 교통특위위원장
	장귀석(만·68)	전 군의회 의장
2	류준상(만·58)	전 군의회 의장
	신윤식(만·63)	전남도의원
	이영재(만·62)	전 고흥조선타운유치 추진위원장
	이재기(만·53)	민주당 전남도당 부대변인
	함재규(만·64)	군의회의장

도 낙선했던 장귀석 전 의장은 "고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찾겠다"며 재도전했다.

제2선거구(도양읍, 풍양·도덕·금산·도화·포두·봉래·동일면)에는 신윤식 도의원과 함재규 군의회의장, 류준상 전 군의회의장, 유영재 전 고흥조선타운유치 추진위원장, 이재기 민주당 전남도당 부대변인 등이 민주당 공천장을 놓고 겨루고 있다.

재선의 신윤식 도의회 예결위원장장은 3선에 도전한다. 군의원 재선에 이은 지방의원 5선 도전이다. 그는 "도의회에서 아직 할 일이 많다"며 고심하던 군수선거 출마 의지를

접었다. 류준상 전 의장은 광주서중과 고흥농고 출신으로 연청활동을 하며 정계에 입문, 1~3대 군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8년 동안 사업에 전념했던 류 전 의장은 "예산 확보를 통해 고흥군 발전에 이바지하고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도의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선의 함재규 군의회 의장은 고흥군 재향군인회장이자 전 고흥군 태권도협회장. 그는 "기업유치로 젊은이가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아픔을 겪은 이재기 부대변인은 낙동선우회장을 지냈으며 지역내 청년들의 신망이 두터운 편이다.

유영재 (62) 전 고흥조선타운유치 추진위원장은 기업인 출신으로 "지역에 봉사의 폭을 넓히고자 이번 지방선거에 직접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